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협상 착수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따라 협상대상지 최종 선정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를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민간제안자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는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다. 제안자는 △용도지역 조정 △공공기여 조정 △공동주택 세대수

조정 등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1월 새로운 개발계획(안)으로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수정 제출했다.

새로운 개발계획은 470미터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했다. 이후 제안자가 검토 결과를 수용하면서 협상대상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협상대상지 선정 주요 검토 결과로는 관계기관의 경우 △도로 확충 및

지하차도 신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 개선 대책 마련 △상하수도 신설 등 기반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열섬을 고려한 녹지 확충 △지하수위 검토 △경관 계획 검토 △타워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디자인 계획 요구 등 다양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제안자는 △사전주 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하고,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도 반영해 성공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라 제안자는 1년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제출 이후에는 전주시와 제안자로 구성된 협상단에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쟁점 및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2단계 협상이 추진된다. 아울러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가 추진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제안자의 개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 교통 및 도로 등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상업 등의 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만들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전주시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우범기 전주시장, 민생현장 방문 나서

제1호 방문지로 지역 의료공백 점검 위해 전북대병원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더 세심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방문 대장정에 나섰다.

우 시장은 앞으로 매주 2~3회씩 진행될 '한걸음 더, 시민 속으로' 2024년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27일 '2024 민생현장 방문'의 첫 번째 방문지로 전북대학교 병원을 찾아 지역 의료공백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우 시장은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돌아보며 유휴철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청취하고,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 시장은 또 시민들의 의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우 시장은 첫 현장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매주 꾸준히 전주시 주요 사업현장과 민원 현장, 민생경제 현장, 취약계층 시설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을 찾아 나갈 계획이다.

우 시장의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2024년 민생현장 방문은 오는 3월 1일 '2024 K리그 개막전'에 맞춰 전



우범기 전주시장은 27일 '2024 민생현장 방문'의 첫 번째 방문지로 전북대학교병원을 찾아 지역 의료공백 상황을 점검했다.

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및 교통 대책 점검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우범기 시장은 이날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 남아 환자의 결을 지켜주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의료공백이 장기화에 접어드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덕진구, 4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올해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바론땅 만들기 사업(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측량 및 경계 설정 등을 통해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현황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4개 지구(덕진2·우아·

호성예코5·용정2), 126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해 구는 지적재조사 지구 내 토지소유자(토지 면적 포함) 3분의 2 이상의 사업지구 신청 동의를 얻어 전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게 된다. 이후 현지 조사·측량, 경계조정, 조정금 지급·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진다.

/김옥기기자

전주시 덕진구, 해빙기 안전 취약지 안전점검 추진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가 해빙기를 맞아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구는 시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와 재해 우려 지역, 경도당 등 해빙기 안전 취약지에 대한 분야별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위험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특히 구는 겨울철 저온으로 뿌려진 염화칼슘 등의 영향으로 불철 해빙

기에 급증하는 포트홀에 대한 긴급보수를 추진하는 한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도로 1,673개 노선 454km 중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노후도로에 대한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구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등 재해 우려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긴급 보수·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김옥기기자

QR코드 활용 시민 편의 높인다

전주시설공단, 파손·고장 신고·마을버스실시간 위치 등 제공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시민 편의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QR코드'를 제작했다.

공단은 체육시설과 장사시설, 공원시설, 주차시설 등 공단이 운영하는 다양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고객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QR코드로 각 시설물의 파손이나 고장, 위험 요소, 비위생 상태 등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총 550곳에 이 같은 신고시스템을 구축했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본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QR코드를 통해 접수된 신고 사항은 즉시 각 부서 시설 담당자에게 전달되며, 신속한 처리로 이어져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각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마을버스 '바로온'은 QR코드를 활용해 마을버스의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정보는 마을버스의 실시간 위치뿐 아니라 노선 정보와 시간표 등 다양하다.

공단은 마을버스 내부를 비롯해



전주시설공단이 시민 편의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한 QR코드. <사진=전주시설공단 제공>

리플릿과 안내 책자, 100여 개 마을버스 승강장 등 다양한 공간에 QR코드를 부착해 시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어울림국민체육센터 체력단련기구 사용법을 익히고, 인라인경기장과 빙상경기장 안전 장비 착용법을 배워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수영장 시설을 비롯한 체육시설 100여 곳에도 응급처치 방법을 QR코드로 제작해 부착할 예정이다.

구대식 이사장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QR코드 활용도 그 일환으로, 시민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금암고 일원 환경개선 사업 현장 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가 27일 덕진구 (구)금암고등학교 부지를 찾아 정비계획 및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구)금암고등학교 부지 현재 상황, 정비 방안, 협조 사항 청취 등 전반적인 정비계획 등을 살폈다.

(구)금암고등학교는 2010년 폐교된 이후 13년째 방치 중인 안전진단 E등급의 고위험 건물로, 지난해 제40회 임시회에서 박선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신속한 도시재생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현재 학교 부지

에 대한 총 2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매입과 공원, 전망대, 놀이터 등 주민편의시설, 노후주택 및 골목길 정비, 보행자 안심 생활 가로 정비, 주민 공방이용 시설 건립 등 국토부 토지 재생 사업 공모 대응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선전 위원장은 "현장 점검으로 그동안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을 위해 재생 사업에 속도를 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연구하는 현장 활동을 지속 펼쳐 신뢰받는 도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